

# 방역수칙 위반업소 강력 대응

### 익산시, 코로나 확산 차단 '무관용 원칙' 적용 100여곳 현장 점검... 음식점 3곳 과태료 부과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7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 3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매장에서 영업을 실시해 적발된 사례이다.

시와 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영등동과 모현동 어양동 신동 부송동 음식점 1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 행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작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증상 또는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WSET전북지역군산대사업단(단장 박성신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이 주최하는 2020 WISSET DAY가 최근 개최됐다.

## 군산대,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들 격려

### 2020 WISSET DAY 성료

WSET전북지역군산대사업단(단장 박성신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이 주최하는 2020 WISSET DAY가 최근 개최됐다.

이 행사는 군산대WISSET사업단이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북지역 여성공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 해 동안 군산대WISSET사업단에 참여 및 조언을 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WISSET DAY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방지를 준수해 제한적으로 진행됐고, 전북지역 대학생 및 참여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학생들을 격려하는 'WSET 여학생상' 시상식과 해양생물학과 김예림 학생의 자취 증취득지원 프로그램, 전기공학과 김숙현 학생의 '토론의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사례 발표가 있었고, '융복합 디자인캠프' 시상식 및 수상자 시연이 이루어졌다.

올해 최우수작은 골든타입팀(IT정보 제어공학부 홍다예, 김동현, 김강산,

강도현/신소재공학과 박종민)에게 돌아갔다. '골든타입'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소방차 길터주기 기술을 추가하여 더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작은 하루살이팀의 '복합형 3D printer'가 차지했다. 하루살이팀은 한 가지 기능만 하는 3D 프린터를 모듈화시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제작했다.

또 다른 우수자인 '13322'팀은 UV 지문인식 무선충전기를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지문인식을 통해 핸드폰 무선충전을 할 수 있고 살균소독까지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융복합디자인캠프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테일한 작품 제작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함께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R-WISSET사업)'이다. 이공계 여대생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인재의 양성과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군산=남영봉 기자

## 익산시 신청사 일대 도시재생 사업 속도

### 전북도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

익산시 신청사 일대에 예정된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11에서도 총괄 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기관들도 속도감 있는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7일 사업 시행 가이드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최근 전라북도 승인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1전북지역본부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다.

노약자는 신청사 1층에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행되는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도비 17억원, 시비 50억원 등 총 16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47억 2천5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확충 공동체 기반조성, LH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이 추진되며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으로 신청사 지역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 확보, 사업계획 승인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발로 뛰는 현장행정 눈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진)가 제232회 임시회 중 7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

상지를 현장방문하여 공유재산 취득 전반을 검토하며 시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여성가족회관 건립사업지를 차례로 방문해 관련부서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계획안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근로능력자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이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가족회관이 온 가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서, 복합가족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양육환경 개선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진 위원장은 "이러한 사업들은 익산시의 미래와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 진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를 현장방문하여 공유재산 취득 전반을 검토하며 시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지역 소식통

### 겨울철 도로설해 대책기간 익산시, 비상근무체제 돌입

익산시가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도로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7일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설해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폭설 등에 대비한 도로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량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m 이상 적설 시에는 전 공무원이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시내 주요 고갯길과 응달지역에 있는 도로 등을 대상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실과소장 책임하에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0개 노선 600km 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과 자체 제설장비 4대와 민간유탁 제설장비 10대를 동원해 읍면지역 간선도로와 동 지역 이면도로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29개 읍면동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등에서 발생했던 제설민원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 1톤용 소형제설장비와 염화칼슘 508톤, 친환경제설제 240톤, 소금 916톤, 모래 850톤 등 제설자재를 확보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다자녀·저소득 가정' 익산시 교육 지원 확대

익산시가 전국 최고 교육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혜택을 확대 추진한다.

익산시는 7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익산시탕정학재단은 올해 장학생 271명을 선발하고 29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세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에 신설된 다자녀 장학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복지비 전카드 지원을 늘려 장학금 혜택을 폭넓게 제공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군산해경, 불법 조업 근해형망 어선 4척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도(道) 경계를 위반해 무허가 조업한 혐의(조업구역 위반)로 7.93t급 근해형망 어선 A호 등 4척을 적발했다.

7일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비응창을 출발해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8km 해상에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다 이날 오후 해경에 적발됐다. A호는 총 남 해상에서 조업한다고 해당 시·도 지사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채 전북 해상까지 넘어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1시와 1시 30분, 5시 5분께 불법으로 야간 조업을 한 근해형망 어선 3척을 적발했

다. 근해형망 어선은 1척의 동력 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되나 적발된 어선들은 이를 어기고 조업을 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행위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